

## 전남 한우 '방목' 전환

### '녹색 축산 5개년 계획' 17개 사업 4천 466억 투입

전남도가 쇠고기 전면 수입시대에 대비, 방목형 축산으로 사육 방식을 전환하고 고품질 한우(1등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 축산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천 선포식을 갖고 관련 예산마련 등 즉각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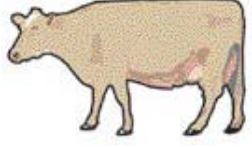
도의 이번 계획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도 불구, 정부가 이렇다 할 한우 보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계획은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3개 분야 17개 사업에 모두 4천 466억원을 투자해 ▲소 운동장을 마련하는 등 방목축산농가를 육성하고 (570농가, 697억원) ▲방목의 전 단계로 축사의 환기·단열 등 시설을 쾌적하게 고치며 (1천800농가, 2천 333억원) ▲축사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활용 등 환경개선사업(1천436억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 수를 현재 1천개에서 오는 2010년까지 2천개로 늘리고, 친환경 방목축산 농가도 40개에서 220개로 증가시킬 방

### 전남도 '녹색 축산' 계획

- ▶ 소 운동장 마련하고 축사 쾌적하게
- ▶ 무항생제 농가수 1천개→2천개
- ▶ 조사료 자급률 47%→55% 확대
- ▶ 1등급 한우비율 60%로 끌어올리기
- ▶ 한우브랜드 4~5개로 통합
- ▶ 한우고기 먹거리촌 10개로 늘려



침이다.

전남도의 이번 계획은 최근의 광주 병 우려여파로 국민들의 쇠고기 소비 정서가 어느때보다 '친환경' '청정' '안전'에 쏠리고있는 데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한우를 먹겠다는 소비자가 늘고있는데 착안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고품질 한우 생산 ▲한우 생산비 절감 ▲안전축산물(이력제) 생산 및 유통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을 별도의 '한우산업 육성 4대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도는 고품질 한우(1등급 출현율) 비율을 오는 2011년까지 현재 55%에서 60%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조사료 자급률(2008년 47%→

2010년 55%) 제고로 사료비 부담을 6%이상 절감시켜 농가의 축산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22개 한우브랜드를 2011년까지 4~5개로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쇠고기 이력제를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한우 사육이 많은 시군 중 2곳을 친환경 한우 특구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없앤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한우고기 먹거리촌'을 현재 5개(장흥, 강진,함평,나주,담양)에서 10개로 늘리는 등 한우고기 유통 구조도 개선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아시아 10국 민속악기만 오케스트라 구성 광주에 아시안 하모니

### 亞문화전당 공연물로

한국의 '가야금', 필리핀의 '반두리아', 미얀마의 '사운' 등 아시아 전통 민속 악기로 구성된 '한-아세안 민속음악 오케스트라'(이하 민속음악 오케스트라)가 창설돼 광주에 들어설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상설 공연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

획단(이하 추진단)은 29~30일 서울 신라호텔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오케스트라 창설 협의를 위한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 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 정부 대표단과 민속음악 오케스트라 창설을 논의한다.

아시아에서 처음 구성되는 민속음악 오케스트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 문화콘텐

츠 공동 개발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8월까지 각국의 민속음악 전문가들로 오케스트라 편성과 공연 레퍼토리 등을 공동연구할 '한-아세안 민속음악 위원회' 설립에 합의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창단 공연과 2009년 아시아 순회공연 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추진단은 이번에 진행한 음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무용(중앙 아시아), 문학(서아시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로 문화 커뮤니티를 구축,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를 확보할 방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3

## 광주시청 앞 철야 응원전

### 31일 밤~6월 1일 새벽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이 사흘 앞(현지 시각 기준)으로 임박하면서 '브뤼셀의 낭보'를 고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응원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3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가 열리는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철야응원전이 펼쳐진다. 총회의 주요 상황은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FISU 총회에서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등 주요 상황을 1일 새벽 3시부터 40여분동안 '광주시 인터넷방송국(http://tv.gwangju.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 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생중계는 현지시점으로 공중과 중계가 없는 점을 감안, 당초 9월 개국을

목표로 추진해온 광주시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긴급 투입했다.

현재 '빛고을 희망채널-GTV'(가칭)로 구축된 인터넷 방송국은 시가지에 인력만으로 기획·제작하게 되며 오는 9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31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시청 문화광장에서 'U대회 유치 기원 철야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여! 미래여! 희망여!'를 주제로 한 응원전에서는 시민과 대학생, 공무원 수천명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응원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열정적인 모습을 연출할 예정이다. 총회의 주요 상황은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철야 응원전은 U대회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원을 한데 모아 '광주 코리아(Gwangju Korea)'가 울려 퍼지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울돌목 조류발전 시설 세번만에 성공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발전소 건설을 위한 철골 구조물 설치작업이 진도 올들목에서 2차례 실패 끝에 27일 성공했다. 무게 1천350t으로 아파트 10층 높이인 초대형 철골 구조물은 1천600t급 대형 바지선의 크레인에 실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울돌목 바닷물 속에 설치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 어제 정상회담... 베이징 올림픽 참석 약속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적극 검토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동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全)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

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와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된다. 또 이 대통령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두 정상은 지금까지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 추진 문제를 계속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50년 전통의 명문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전도서의 중점특권은 우리는 3,813 제대단체!

정예한 특수부대 3개사 배치 수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무안 ↔ 대만

무안 ↔ 상해 (02)

무안 ↔ 심양 (4주)

무안 ↔ 홍콩/마카오